

광주·전남 몰아친 조국혁신당 ‘태풍’

비례정당 득표 광주 47.7%·전남 43.9% 타 정당 압도 민주당 실망감에 대안세력 판단 유권자 선택 몰린듯 “민주당에 보낸 지역민의 ‘경고 메시지’ 잊지 말아야”

조국혁신당 ‘태풍’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전남에 몰아쳤다. 민주당이 광주·전남 18개 지역구를 싸출이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득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총선을 목전에 두고 3월 초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불과 2개월도 안돼 광주·전남의 맹주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린 것은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는 게 중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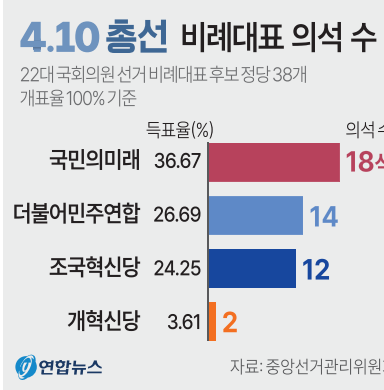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제22대 총선 개표를 마무리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광주 47.7%, 전남 43.97%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광주 5.77%, 전남 6.63%)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연합(광주 36.26%, 전남 39.88%)을 압도하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전남 지역구 선거에서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70~90% 사이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일관된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 득표율은 전국 득표율 24.25%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사실상 광주·전남지역이 조국혁신당의 전국 득표율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국민의미래가 36.67%

득표해 18석을 확보했고, 더불어민주당연합은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은 24.25%로 12석,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차지했다. 전국 득표율 기준 더불어민주당연합과 조국혁신당을 합하면 50.94%로 과반이 넘는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을 선택한 셈이다.

광주·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득표를 1위를 차지한 것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실망에 따른 민심 이반, 그리고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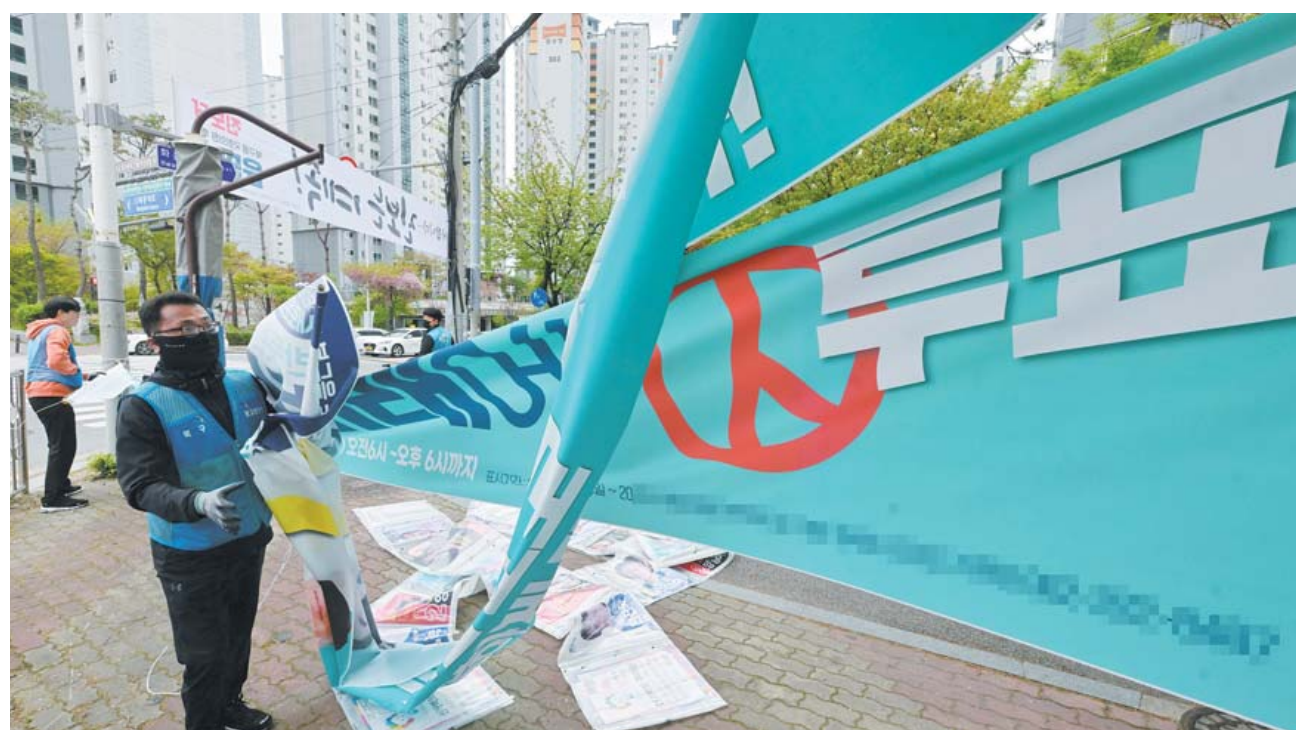
석열 정부 심판론이 맞물려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선거 전부터 감지됐다. 광주·전남지역 언론

사들이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4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기간 동안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실제 투표에서도 민심을 파고드는 데 성공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선거 기간을 거치며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는 했지만 예상을 뛰어 넘는 결과”라며 “텃밭에서 정당 지지를 1위를 내준 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정 기자



철거되는 총선 현수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다음날인 11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복구청 직원들이 선거 관련 현수막과 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광주·전남 연고 비례 국회의원 7명 당선

민주당연합 3명, 국민의미래 2명, 조국·개혁 각 1명

4·10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에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전종덕, 김윤, 강선영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 가운데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연합 3명 ▲국민의미래 2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인요한, 서왕진, 천하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서는 서미화(1번)·전종덕(11번)·김윤(12번) 후보 등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장애인이기도 한 서미화 당선자(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는 목표 출신으로 목표시의원을 지냈다.

환산 태생인 전종덕 전 민주노동당 소속 전남도의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광주 출신 보건의로 정책 전문가다. 그는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정진욱 당선자와 금호고동기(8호)이기도 하다.

국민의미래에서는 강선영(6번)·인요한(8번) 당선자가 광주·전남 출신이다. 대한민국 군인 최초 여성 투스타인

강선영 당선자(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는 여수,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자인 ‘푸른 눈’의 인요한 당선자(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는 순천 출신이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당 정책위의장(12번)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서왕진은 영광 출신으로 환경정의연구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 서울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2번) 최고위원이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변호사인 그는 대구 출신이지만 순천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와 ‘친 호남계’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데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 최초 여성 투스타인 /김진수 기자

“정권심판·민생회복 염원 보답하겠다”

광주 당선자 8명, 5·18묘지 참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 8명은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선자들은 이날 엄숙한 분위기 속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오월 영령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국립5·18민주묘지 내 행방불명자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약속을 다짐하는 큰 절을 올렸다.

이들은 합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가를 걱정하신 광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영 명주’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채 상병 순직 사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땅 문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추가조작 사건) 5대 실정을 확실히 심판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당선자들은 “광주 균형발전,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광주·전남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광주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놀거리를 넓혀나가는 문화도시 광주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옥중 출마’ 서구갑 송영길 득표율 17.38%

선거비용 전액 보전받아...광산을 이낙연 득표율 상회

4·10 총선에 옥중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광주 서구갑)가 17.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체 후보 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당선자(68.4%)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송 대표는 투표수 8만3천480표 가운데 17.38%에 달하는 1만4천292표를 얻었다. 3·4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하현식(7천488표) 후보, 진보당 강승철(4천174표) 후보의 득표수를 합산한 것보다 많다.

광주 8개 전체 선거구에선 광산을 세로운미래 이낙연(13.84%)·동구를 무소속 김성환(16.16%)·서구를 녹색정의당 강은미(14.66%)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

이다. 보석 청구 기각으로 유권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던 데도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받는다. 구속 상태인 송 대표를 대신해 배우자 남영신씨와 자녀 주환·현주씨가 선거운동을 해왔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TV 연설 녹화 방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선강 기자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남 대회에서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2월 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말 증거 인멸 염려 등이 있다며 기각했다.

정당은 소나무당 부대변인은 “조금은 어렵지만 광주시민, 그리고 전국 유권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즉각 탄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